학생인권에 치인 선생님들의 인권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침해사례 급증

지난해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는 제자가 자신을 폭행협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B군을 꾸짖는 과정에서 되레 항의하는 B군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이 빌미가 됐다.

B군은 과잉체벌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해당 학생이 고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해 사태는 마무리 됐지만, A교사는 당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교사에게 제자가 욕설·폭언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6~2010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교권침해 건수 13건 가운데 9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지난 2006년 1건, 2007년 0건, 2008년 1건, 2009년 2건임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교권침해 사례 13건 가운데 남학생은 9명, 4명은 여학생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한 경우다.

전남에서도 5년새 발생한 전체 교권침해 사례 18건 가운데 대부분인 16건이 지난해에 발생했다. 지난 2006년, 2007년, 2009년에는 교권침해 사례가 없었으며, 2008년 2건에 그쳤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논의를 시작한 지난해 총 523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지난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도 더욱 보장돼야 하겠지만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 확립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인기 광주시 광산구와 광산구 농민회, 6개 지역농협은 24일 광산구 첨단2동 부영2차 아파트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날 장터에는 23개 우리 농산물과 가공품이 선보였으며, 중간 유통단계 없이 20~30% 저렴하게 판매돼 호응을 얻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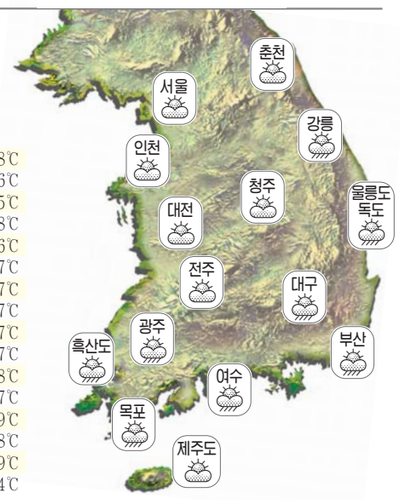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9분 해짐 19시 10분 달뜸 01시 29분 달짐 16시 11분

운전 '주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광 주	흐리고가끔비	20/28℃
목 포	흐리고가끔비	20/26℃
여 수	흐리고가끔비	21/25℃
나 주	흐리고가끔비	20/28℃
완 도	흐리고가끔비	21/26℃
구 례	흐리고가끔비	20/27℃
강 진	흐리고가끔비	21/27℃
해 남	흐리고가끔비	21/27℃
장 흥	흐리고가끔비	21/27℃
순 천	흐리고가끔비	20/27℃
영 광	흐리고가끔비	20/28℃
진 도	흐리고가끔비	21/27℃
전 주	구름많음	20/29℃
군 산	구름많음	20/28℃
남 원	구름많음	20/29℃
흑산도	흐리고가끔비	20/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10:20 23:40	04:44 16:20
여수	05:57 18:48	00:20 12:0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날 씨						
최저/최고	22/27	24/28	24/29	24/30	24/30	24/28

벌초·성묘때 '벌 쏘임' 주의보

광주 벌집 제거 요청 잇따라…전북 60대 사망도

최근 전북에서 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벌에 쏘여 부상을 입거나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구조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매일 20여 건의 벌집 제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무등산 인근을 찾은 외지인 수 명이 일시에 벌에 쏘이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김모(52)씨는 "무등산 한 호텔에서 운영하는 리프트를 타는 도중 기둥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나온 벌들에 어른과 아이 등 10여 명이 쏘였다"며 "119구급차 2대에 나누어 2곳의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 벌 쏘임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벌에 쏘이면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산행이나 벌초를 할 때 벌을 자극하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이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고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오후 2시40분께 지난 19일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벌에 쏘여 치료를 받던 강모(여·60)씨가 숨지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전북에서만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추석 성수품 대대적 검사

市, 한과류 1건 폐기 조치

광주시는 추석(9월 12일)을 앞두고 한과류와 나물류 등 성수 식품에 대한 검사를 벌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과류 1건에 대해 해당 제품 폐기와 제조 15일 금지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대형할인 매장에서 유통, 판매 중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인 밤, 대추 등 농산물 15건, 어묵류 13건, 한과류 9건, 떡류 6건, 식용유지류 13건, 건어포류 14건, 약주 4건, 기타 13건 등 총 8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벌였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은 24일 추석 대목을 노리고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임모(5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성범죄 피해 아동 국선 변호인 선임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들이 앞으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전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반복적인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며 공판 절차에서도 인권을 배려받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신안 자은도서 수천년전 사구습지층 발견

수천년 전 식생이나 해수면 변화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매몰 사구습지층이 신안 자은도 해안사구에서 발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은도 내 둔장, 외기·내치, 백산, 면전 해안사구를 연구한 2010년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결과 수천년 간 매몰된 사구습지층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대 측정 결과 백산사구는 약 6400년 전의 고사구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기·내치사구에서 발견된 이탄층은 약 1800년 전부터 700년 전까지 존재했던 사구습지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매몰된 사구부식층(유기물이 사구모래층에 섞여 있는 층)에 대한 학술보고는 있었으나 매몰된 사구습지층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습지는 사구지대에 존재하면서 당시 지하수면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식생이 포함돼 있어 과거 해수면이나 해안선 변화,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kWh)일때	설치시 청구요금	절 감 요 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